

Taking Action On Climate Change

DGB금융그룹 TCFD Progress Report

Introduction

전 세계는 2015년 파리협정(The Paris Agreement)을 통해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도전적인 여정에 들어섰습니다.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 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C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전 지구적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국가가 2020년부터 기후행동에 참여하고 5년 주기 점검을 통해 이행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BAU) 대비 37% 감축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명하고 신기후체제 출범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해 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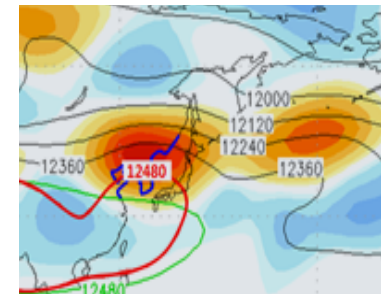
Risk & Opportunity

기후변화 문제는 이제 더 이상 특정 산업이 당면한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화재, 홍수, 태풍, 가뭄, 폭설 등의 자연재해 증가로 생산 시설이 파손되는 등 경제 사회적 피해규모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DGB금융그룹의 주요 사업 지역 중의 하나인 경북지역의 경우도 2018년 여름 폭염으로 인해 약 114억원 가량의 전례 없는 농작물 피해액이 발생하였으며, 가축 폐사량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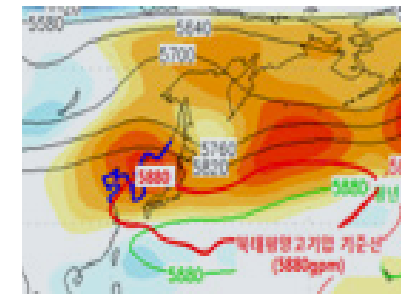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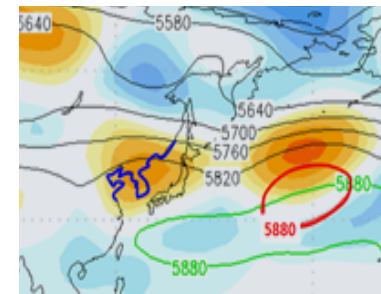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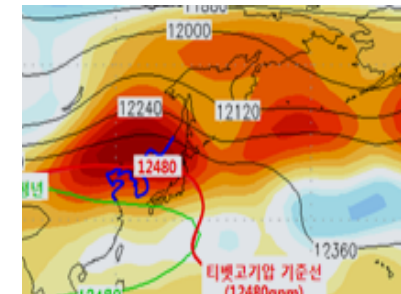
이와 같은 기상이변은 농지나 공장 손상 등 물리적 피해를 발생시켜 가계와 기업의 담보 능력을 떨어지고 신용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며, 동시에 보험금 청구 증가로 이어져 금융산업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연기금 등이 ESG를 고려한 장기투자 및 손실 저감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어, 기후변화 위기업종(석유와 석탄, 가스, 화학 등)의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기회업종(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천연가스 등)의 기업가치는 상승시켜 해당분야에 대출이나 투자를 한 금융사들에게 손실과 기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994년과 2018년 한반도 폭염비교

< 1994년 >



< 2018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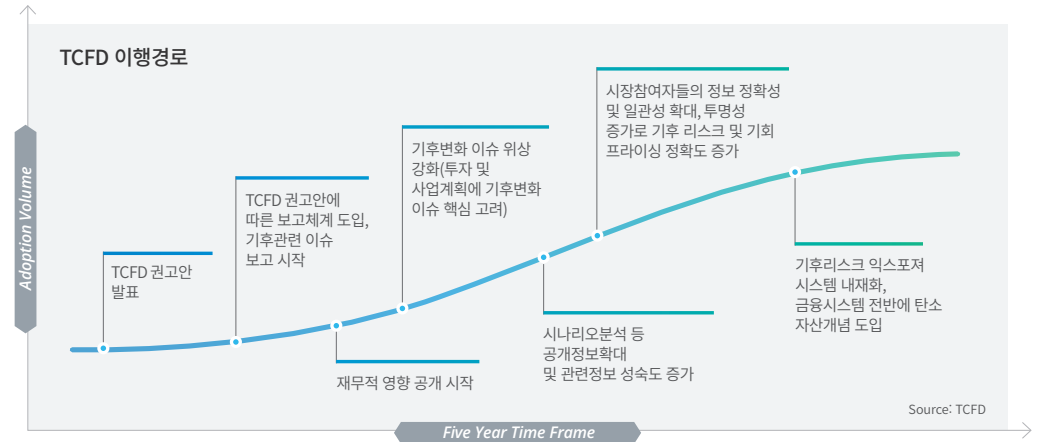


Source: 기상청

DGB금융그룹 TCFD 대조표

DGB금융그룹은 2018년부터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 정보 공개 태스크포스)의 멤버로 참여하고 있으며, TCFD의 권고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TCFD 권고안에 따라 핵심공개 요소인 4대 영역(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와 목표) 이행성과를 대조표를 통해 공시합니다.

DGB금융그룹은 2020년 발간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함께 기후변화 관련 정보 별지보고서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재무정보 공개 대응강화, 금융리스크 시스템 내재화 등 기후 관련 대응체계를 점차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TCFD 권고안	CDP 공시	DGB금융그룹
지배구조: 기후변화 위험과 기회요인을 평가 및 관리하기 위한 조직의 지배구조를 공개		
a) 기후변화 위험 및 기회와 관련된 이사회 활동에 대해 설명	C1.1b	DGB금융그룹은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운영을 통해 4개 부문(지속가능금융, 윤리기업문화, 사회공헌, 환경경영 협의회)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중 환경경영 협의회가 기후변화 위험 및 기회 식별, 세부전략 수립 및 실행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 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의장(지주사 상무)의 검토 후 최고 거버넌스 기구인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 위원장(그룹 회장)에게 보고되어 최종검토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b) 기후변화 위험과 기회를 평가, 관리하는 경영진의 역할을 설명	C1.2, C1.2a	기후변화 관련 실무 업무는 DGB금융그룹 녹색금융단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녹색금융단에서 논의 되는 이슈는 지속가능경영 실무협의회의 의장에게 1년 2회 이상 보고 되고 있습니다.
전략: 기후변화와 관련된 리스크와 기회가 조직의 사업, 전략, 재무계획 수립에 미치는 실질적 및 잠재적 영향에 대해 공개		
a) 단기, 중장기 및 장기적인 측면의 기후변화 위험과 기회를 설명	C2.1, C2.3, C2.3a, C2.4, C2.4a	단기적으로는 DGB금융그룹에 포함된 8개 자회사의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패턴의 변화를 잠재적 리스크로 식별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중기적으로는 자회사 별 기후 리스크 및 기회관리체계 강화하고, 리서치 협업 및 감축프로젝트 개발을 통해 기후금융 상품의 기회요인을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 위기업종(석탄, 석유, 유틸리티, 공업 등) 및 기회업종(재생에너지, IT, 천연가스, 보건 등) 고려한 투자 및 여신 포트폴리오 조정, 신상품 개발 등 금융을 통한 리스크 저감 및 사업 기회 확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TCFD 권고안	CDP 공시	DGB금융그룹
b) 기후변화 위험과 기회가 조직의 사업, 전략 및 재무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	C2.3a, C2.4a, C2.5, C2.6, C3.1, C3.1c, C3.1d	DGB금융그룹은 제도적 변화 및 물리적 변화에 따른 위험 및 기회를 고려한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08년 3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실천계획인 'DGB STOP CO2플랜'을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녹색상품 판매, 사이버그린지점운영, 친환경기업 지원 등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기후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객, 파트너사, 지역연구기관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공동 연구, 정보 공유를 통한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기후를 고려한 금융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c) 2°C 이하의 시나리오를 포함하여 다양한 기후변화와 관련된 시나리오를 고려한 전략을 설명	C3.1a	DGB금융그룹은 2018년 국내 금융그룹 최초로 SBTi(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과학기반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니셔티브)에 서명하여,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지구의 기온상승을 2°C 이하로 제한하는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향후 SBT에서 제공하고 있는 목표 설정 지침 및 방법론을 통해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수립된 목표 이행을 통해 저탄소 지역사회 조성에 적극 참여하고자 합니다.
위험관리: 기후변화 위험과 기회요인을 식별, 평가, 관리하는 방법을 공개		
a) 기후변화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설명	C2.2b, C2.2c	DGB금융그룹은 2011년부터 ISO 14001 및 14064에 기반한 녹색경영시스템(GMS)를 구축하여 전사적 차원의 기후변화 리스크를 정기적으로 식별 및 평가하고 있으며, 대출 등 거래기업에 대한 리스크 및 평가를 지속해나가고 있습니다.
b) 기후변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설명	C2.2d	재무 및 비재무리스크는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위험관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며, 위험관리위원회는 분기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산하에 위험관리협의회를 운영하여 리스크 관련 세부사항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리스크는 2018년 이머징 리스크(Emerging Risk)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c) 기후변화 위험을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조직의 전반적인 위험 관리 체계에 어떻게 통합되는지를 설명	C2.2	기후 리스크는 GMS 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영업점 및 계열사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DGB금융지주 내 DGB경영연구소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한 중장기 영향 분석 및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위험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지표 및 목표: 기후변화 위험과 기회를 평가,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지표와 감축목표를 공개		
a) 기후변화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지표를 공개	C4.2, C9.1	DGB금융그룹은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집약도 등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에서 요구하는 지표들을 고려하여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CDP 응답을 통해 관련정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b) Scope 1, Scope 2, 그리고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	C6.1, C6.3, C6.5	Scope 1: 3,835 tCO ₂ e, Scope 2: 16,871 tCO ₂ e, Scope 3: 3,843 tCO ₂ e
c) 기후변화 위험, 기회와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	C4.1, C4.1a, C4.1b, C4.2	DGB금융그룹은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를 15%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2018년 대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DGB금융그룹 기후리스크 분석

DGB금융그룹은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과정 중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좌초자산¹⁾을 파악하였고, 이를 기후변화 리스크 요인으로 분석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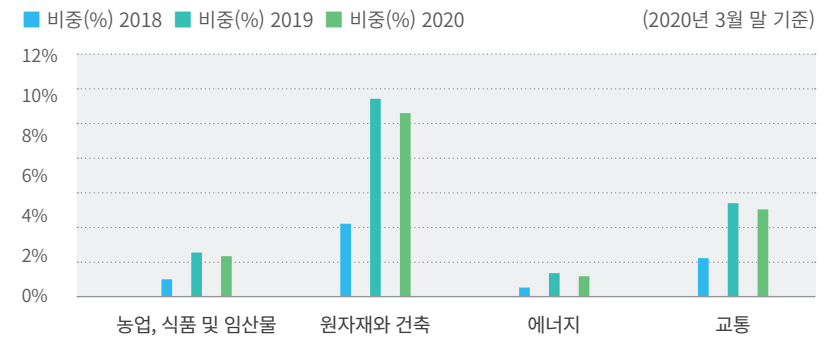
기후변화는 장기간에 걸쳐 종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금융권의 피해 정도를 수치화하는 데는 많은 가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리스크 분석 결과는 제약사항이 다소 있기에 수치의 정확도보다는 트렌드 확인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DGB금융그룹은 더욱 세분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을 진행하여 기후변화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입니다. 또한 기후변화가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계속 발전하고 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정확한 예측과 분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TCFD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을 물리적 위험 및 전환에 따른 위험으로 구분하여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DGB금융그룹은 TCFD 권고안²⁾에서 기후 관련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식별된 핵심 영역 4부문 및 하위 영역에 대한 익스포저(EAD³⁾)를 분석했습니다.

탄소배출 위험 업종 익스포저



탄소배출 위험이 있는 4개 부문이 DGB금융그룹의 총 EAD³⁾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45%로 전년 20.9%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원자재와 건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업종인 에너지 부문의 비중이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탄소배출 업종에 대한 위험 노출 정도

● Low: 업종 비중 1% 미만 ● Medium: 업종 비중 1 - 5% ● High: 업종 비중 5% 이상 (2020년 3월 말 기준)

기후변화 위험 업종		DGB금융그룹	DGB대구은행	하이투자증권	DGB생명	DGB캐피탈
농업, 식품 및 임산물	농업	●	●	●	●	●
	식품	●	●	●	●	●
	제지 및 임산물	●	●	●	●	●
원자재와 건축	원자재	●	●	●	●	●
	건축	●	●	●	●	●
에너지	에너지	●	●	●	●	●
교통	항공 해상 운송	●	●	●	●	●
	철도 및 도로 운송	●	●	●	●	●

¹⁾ 좌초자산(Stranded asset): 시장환경의 변화로 자산가치가 떨어져 상각되거나 부채로 전환되는 자산을 의미

²⁾ 참고: <https://www.fsb-tcf.org/publications/final-recommendations-report/> ³⁾ 부도시 익스포저(Exposure at Default)